

지시사 대응적 용법의 대조연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¹ 서울대학교 언어학과²
 김명자¹ · 채숙희¹ · 조은영¹ · 이정민²

A Comparative Analysis of Anaphoric Usage of Demonstratives

Myungja Kim¹ · Sookhee Chae¹ · Eunyong Cho¹ · Chungmin Lee²

Institute of Humanities,¹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Linguistics,²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요 약

본 연구는 지시사가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개체를 대응하여 지시하는 문맥지시의 경우에 각 언어별로 어떠한 지시사가 사용되며 이들의 분포는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를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영어에서는 근칭/원칭 지시사가 직시적인 용법에서의 의미를 비교적 유지하면서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한국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등은 좀 더 자주 사용되는 형태와 그렇지 못한 형태의 무표/유표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각 언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지시사 분포양식을 인지상태와 화자의 관심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비교, 대조 분석함으로써 유표적인 형태에 대한 유형론적 의미를 모색한다.

머 리 말

담화상에 존재하는 개체 혹은 개념을 지칭하는 표현수단 중의 하나인 지시사의 체계는 영어에서는 'this/that', 러시아어에서는 'этот/тот'로 근칭/원칭의 이원체계를 보인다.¹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이/그/저', 서반아어에서는 'este/ese/aquel'로 근칭/중칭/원칭의 삼원화된 체계를 보인다. 그러나 지시사의 여러 용법 중,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개체를 지시하는 대응적(anaphoric)인 용법으로서의 문맥지시의 경우 한국어와 서반아어에서도 이원화된 체계를 보인다. 즉 한국어의 지시사는 '이/그/저'로 삼분되지만 그 대응적인 문맥지시의 용례는 '이/그'에 제한되고 서반아어에서는 전자/후자를 가리킬 때 후자를 대신하는 원칭(aquel)의 제한적 사용을 제외하고는 대응적 문맥지시에서 'este/ese'의 분포가 높은 편이다.

지시사의 분포면에 있어서는, 근칭/원칭 지시사가 비교

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영어와는 달리 러시아어에는 근칭지시사 'этот'가 널리 사용되고 원칭지시사 'тот'가 극히 제한되어 나타나고, 서반아어에서도 근칭지시사 'этот'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중칭지시사 '그'가 더 널리 쓰인다. 이처럼 러시아어, 서반아어와 한국어는 두 지시사의 쓰임새가 유표/무표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영어와 차별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의 접근법에 근거하여, 인지상태(cognitive status)와 해당 지시체에 대해 기울이는 화자의 관심의 정도에² 준하여 한국어, 러시아어, 서반아어의 대응적 문맥지시에 사용되는 유표적 지시사의 용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유형론적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지시사는 그 기능에 준해 크게 지시대명사(pronominal demonstrative)와 지시형용사(adnominal demonstrative)로 나뉘는데 그 대응적 용법에 있어 지시형용사는 한정 지시표현의 한 유형으로 다른 명사 앞에 붙어서 어떤 개체를 지칭하는 지시표현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지시대명사는 그 자체로서 지시표현으로 쓰이며, 앞선 발화 전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시형용사와 차별화 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지시형용사의 대응적 용법을 다룬다.

2 이러한 개념이 Strauss(1993)에서는 referential focus, Sidner(1986)에서는 focus, 중심화이론(centering theory)에서는 center로 표현되어왔는데, 본고에서는 특정한 이론과는 무관하게 '관심의 중심'으로 이 개념을 표현하기로 한다.

인지상태

대용적인 지시표현은 범언어적으로 인칭대명사, 영형대명사, 지시사(+명사), 명사 중에서 선택된다. 이 중 지시사는 인칭대명사에 비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서반아어, 일본어 등에서 한정적 지시표현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³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 ; 275)의 '주어 집성의 층위' (Givenness Hierarchy)⁴에 의하면 특정한 지시형태의 선택은 그 인지상태(cognitive status)의 차이와 Grice의 양의 격률에 의거한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 implicature)으로 설명된다. 영어의 'this/that', 서반아어의 'este/ese, aquel'은 각각 그 인지상태가 최소한 [활성화(activated)]/[친숙함(familiar)]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그 해당 예로 아래의 ①이 제시된다.

① A : Have you seen the neighbor's dog?

B : Yes, and this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B : Yes, and that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영어의 지시사 'this'는 해당 지시체가 화자 자신의 이전 발화에서 언급되는 방식으로 화자중심의 활성화(speaker-activated)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질문(1A)에 표현된 개체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1B)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서반아어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남을 예문 ②가 보여준다.

② A : Has visto el perro del vecino?

Have seen the dog of-the neighbor

B : Si. Este perro me hizo desvelar anoche.

Yes. This dog me (acc.) made keep awake last night.

B : Si. Ese perro me hizo desvelar anoche.

Yes. that dog me (acc.) made keep awake last night.

한국어의 지시사 '이/그' 역시 '주어집성의 층위' 식으로 보자면 영어처럼 [활성화]/[친숙함]에 준해 차별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의해 언급된 개체를 대용해서 지시하는 경우 지시사 '이'의 사용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A : 너 어제 책 샀다며? 좀 보여줄래?

B : 그건/*이건 벌써 영희가 가져 갔어.

④ A : 네 딸에게 좀 부탁해 줘.

B : 갠/*앤 그런 일을 못할 거야.

⑤ A : 김 박사님, 채소의 검은 무늬병에 대한 문의가 들어 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B : 네, 그/*이 병은 주로 배추에 생기는 것인데요(장경희, 1980, 172).

위의 예들은 모두 대화 상대방이 언급한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인데, '그'만이 쓰임을 알 수 있다. 각 지시사가 가리키는 지시체는 '자신이 소유한 책(3B)', '자신의 딸(4B)',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5B)' 등으로 심리적으로 A보다는 B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이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 예문을 설명하는 데에는 인지상태라는 개념이 유용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두 지시사 'этот'와 'тот'가 모두 [친숙함]을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상태에 준해서는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문맥에서도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

⑥ A : Vy videli sobaku u soseda?

You saw dog(acc) in neighbour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 본 적 있으세요?

B : Da, эта sobaka u soseda mne vsju noč?' ne davala spat'.

Yes, this dog in neighbour me (dat) all night not made sleep

네, 어제 밤에 그 개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B : Da, та sobaka u soseda mne vsju noč?' ne davala spat'.

Yes, that dog in neighbour me (dat) all night not made sleep

네, 어제 밤에 그 개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처럼 러시아어에서는 두 가지 지시사가 다 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та sobaka'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 지시사의 인지상태가 동일하여 두 형태가 다 대용사로 가능하되 어느 한 형태가 선호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지상태에 준한 설명이 대부분의 언어에 유용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어 지시사의 대용적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상태와는 다른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심의 중심

영어의 'this/that'은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감으로 차

3 Gundel, Hedberg & Zacharski(1993 : 291~292)에 따르면 영어 51/240, 러시아어 21/284, 중국어 51/240, 서반아어 12/331, 일본어 48/363 등으로 사용 빈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4 in focus > activated > familiar > uniquely identifiable > referential > type identifiable.

별화된다. 'this'는 화자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 혹은 경험이나 감정이입의 측면에서 근접한 것을 나타내는 반면 'that'은 덜 가까운 것, 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idner(1986)는 'this'는 주초점(main focus)을, 'that'은 예비초점 혹은 구조초점(potential or old focus)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비는 대조의 문맥에서 잘 드러난다.

- ⑦ 1) I'm having a party tomorrow night.
- 2) It will be like the one I had last week.
- 3) That party was a big success, because everyone danced.
- 4) This one will have better food. I've asked everyone to bring something special.
- 5) Want to come? (Sidner 1986)

위의 담화에서 화자의 주된 관심사는 '내일의 파티'이며, '지난 주의 파티'는 전자와의 비교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도입된 개체이다. 따라서 화자의 주된 관심사는 4)에서 'this'로,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도입된 것은 3)에서 'that'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비슷한 개념들로 고초점(high focus)/저초점(low focus) (Strauss 1993), 주요 초점(central focus)/주변 초점(peripheral focus) (Oh 2001) 등이 'this/that'의 대응적 용법을 정의하고 있다.

서반어어에서는 근칭 지시사 'este'를 써서 화자의 심리적인 근접성을 나타낸다. 가령 예문 ⑧의 지난 학창시절에 대한 대화에서 어떤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근황이 문득 궁금해진 화자는 근칭 지시사를 통해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나타낸다.

⑧ Tú, siempre con ese Juanito. Recuerdas que él fue tan tímido, poniéndose rojo cuando hablaba con las chicas? Y... que será de este chico ahora?"

You, always with that juanito Do you remember that he was so shy, and... what will be (he) of this boy now?

너는 언제나 그 Juanito와 함께였지. 기억해? 여자애들이랑 얘기할때면 얼굴이 빨개지던 수줍은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애는 지금 뭘하고 있을까?

한편 ⑨에서는 중칭 지시사 'ese'를 통해 경멸이나 거리감을 표현한다.

- ⑨ No me hables de ese tonto.

Don't tell me about that stupid

그 멧덩구리 얘기 좀 하지마.

Anda, anda, véte de mi presencia con ese tío embeleco.

Go away from my presence with that guy fraud.

어라, 어라, 그 허풍선이랑 내 앞에서 썩겨져라.

영어에서는 원래의 직시적인 의미의 대조가 두 지시사의 대응적인 용법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나 러시아어에는 유표적인 형태에만 원래의 직시적인 지시사의 의미가 투영된다. 즉 한국어는 '이'가 화자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인 근접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 러시아어의 tot는 [-관점 이입]표지로 작용하여, 특히 대조⁵의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대상을 지칭한다.

아래의 한국어 예 ⑩은 지시사 '이'의 심리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⑩ 그리고 그 아래 저 푸른 못이 원소라는 못인데, 이 못은 이 동네의 생명선이다. 이 못이 있길래 저 동네가 생겼으며 저 앞벌이 개간된 것이다. 그리고 이 동네 개 짐승까지라도 이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못'은 '저 푸른 못'을 보건대 분명 직시 의미에서는 원칭임에도 그 다음 발화에서 계속 '이 못'으로 지칭되고 있다. 여기서 '이'는 대용사로 화자가 계속 그 '못'에 대해 얘기하면서 심리적으로 가까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위의 예에서 '이 동네'와 '저 동네'도 동일 맥락에서 이해된다.

반면 러시아어는 'tot'가 [-관점이입]의 표지로 작용하여 화자로부터의 심리적인 거리를 느낄 수 있음이 아래의 예들에서 나타난다.

⑪ Na Bronnoj uže zažglis' fonari, a nad Patriaršimi svetila zolotaja luna, i v lunnom, vseгда obmančivom svete, Ivanu Nikolaeviču pokazalos', čto tot stoit, derža pod myškoju ne trost', a špagu (Bulgakov 1980 : 45).

On Bronnoj already lighted lamps and on Patriarš shined golden moon and in lunar, always deceptive light, Ivan Nikolaevič (dat.) seemed that that stands, holding under arm not cane but sword.

Bronaja 위로 이미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Patriarš 위에는 금빛 달이 빛을 밝히고 있었고 달빛에서 이반의 눈에 는 그(교수)가 지팡이가 아니라 긴 칼을 겨드랑 밑에 차고 서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위의 예에서 '그 교수'는 철저히 이반 니콜라예비치의 눈에 비쳐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는 주절 동사로 영어의 'seemed'에 해당되는 'pokazalos'가 옴으로써 그 주어가 자동적으로 관점이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로 입증된

5 이 경우 'tot'는 contrastive topic(Lee, 2002)의 기능을 담당한다. 대조의 맥락이 아닌 경우에 'tot'는 선행사 결정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Kibrik, 1996).

다. 이반은 동료의 죽음을 예견한 불길한 ‘그 교수’에 대해 상당한 적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반입장에서의 심리적 거리감이 바로 지시사 ‘tot’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지시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거리감의 차이는 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담화구조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용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this’는 관심의 이동(focus movement)(Isard, 1975 ; Linde, 1979 ; Bosch, 1983 ; Sidner, 1986), ‘that’은 팝 오픈된 관심⁶을 각각 나타낸다. 아래의 예는 관심의 이동을 보여준다.

⑫ 1) One day Bill’s father bought Bill a new softball.

2) Bill and his friends played with it daily.

3) Not long after Harry was given a hardball by his uncle.

4) This ball, allowing more speed and accuracy than Bill’s, became the boy’s choice for all their baseball games.

5) That bothered Bill’s father.

6) because he didn’t like to see Bill neglect his toys. (Sidner 1986 : 327)

⑫의 1, 2)에서 화자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a new softball’이며 이것이 2)에서는 인칭대명사 ‘it’으로 표시된다. 3)에서 새로운 개체인 ‘a hardball’이 도입되는데, 이것이 4)에서 ‘this’라는 지시사를 취하면서 뒤따르는 발화에서는 이 새로운 개체로 화자의 주된 관심이 이동하게 된다.

한국어에서도 근칭지시사 ‘이’가 관심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에서 ‘그’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대용사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Himmelmann(1996)은 무관사 언어에서 새로 언급된 대상의 대용적 지시표현으로는 지시사가 선호된다고 밝힌바 있다. 관심의 이동과 관련된 한국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⑬ 국제배구연맹(FIVB)은 29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예선리그에서 지난대회 우승팀 쿠바가 10전 전승을 기록, c조 1위를 차지했고 전년도 2위 러시아와 브라질도 A, B조에서 나란히 8승 2패를 올려 6강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 3팀은 이로써 오는 7월 12일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예선성적을 안고 싸우는 4강리그에 진출했다.

위의 예에서 쿠바, 브라질, 러시아는 담화 첫 발화에서 처

6 팝오픈된 관심이란 스택의 최상 위치에 있는 데이터 요소를 인출하여 삭제하는 조작인 팝(POP)에 의해서 당장의 관심권에서 밀려난 대상을 의미한다.

음 언급되고 다음 발화에서 화자의 새 관심의 중심으로 되는데 이는 ‘이’를 통해 명확히 나타난다. 단 관심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이’가 오는 것은 아니고 대신 ‘그’가 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⑭ 1) 의사는 철수에게 목례를 하면서 그를 보지 않고 민수를 보았다. 그 사람은 의사가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2) 의사는 철수에게 목례를 하면서 그를 보지 않고 민수를 보았다. 이 사람은 의사가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위의 예문은 선행발화에서 관심의 중심이었던 ‘의사’가 현 발화에서 더 이상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고 민수나 철수로 관심의 중심이 이동한 경우이다. 이때 ‘이’와 ‘그’가 다 올 수는 있지만 민수를 지칭할 가능성이 ‘그’에서보다 ‘이’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이’의 경우에 선행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⁷

위의 예들에 대한 모국어 사용자들의 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⑮ 그 사람 : 민수(9/16), 철수(4/16), 철수>민수(1) 철수=민수(2)

이 사람 : 민수(14/16), 철수(0), 민수>철수(2)

즉 응답자들은 관심의 중심이 이동되는 경우 ‘이’ ‘그’를 다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이’에는 일관되게 ‘민수’에 국한되는 반면 ‘그’는 그 지시대상이 ‘민수’일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비해 그리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의 ‘이’가 선행사와의 거리에서 비교적 가까운 대상을 지칭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러시아어는 관심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우 ‘etot’가 대용사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⑯ No édanjnyj epizod jabljaetsja očerednoj pričinoj dlja togo čtoby skeptičeski ocenivat’ buduščee Soveta Bezopasnosti(OB) OON. étot organ bolee čem bespolezen, Esli ego ključevye členy s takim prezreniem odnosjatsja k ego rešenijam.

7 선행사와의 거리와 관련해서 러시아어는 한국어나 영어와 대조적으로 원칭 지시사 ‘tot’가 더 가까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ysli o smerti byli gorazdo legče pamjati.

Thoughts about death were much lighter memory

Ta dostabjala bol’, a éti ničego...

That granted pain and this nothing

죽음에 대한 생각은 기억보다 훨씬 더 가벼웠다. 후자(기억)는 고통을 주었지만 전자(죽음에 대한 생각)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But given episode is usual reason for that in order that skeptically estimate future counsel (gen) Security UN this organ more than useless If its key members with that contempt treat to Its resolution

그러나 그 일화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앞날을 회의적으로 보게 하는 예의 이유가 된다. 만일 그 주요 회원국들이 그 결정을 무시한다면 이 기관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위의 예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ə'tot'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이동하는 경우 러시아어는 언뜻 보아 'tot'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는 관심의 이동보다는 [-관점이입]이 작용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팝오프된 관심을 나타내는 'that'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⑰ I 1) A : Well, I was just looking around my house and thinking about the painting that I've done.

2) B : Uh-huh.

3a) A : And the last time that, um, we tackled it, I did the kitchen.

II 3b) And I had gone through a period of depression at one time and painted everything a dark, it was called a sassafras, it was kind of an orangish brown.

4) B : Okay.

5) A : It was not real pretty.

6) B : Yeah.

III 7) A : Anyway, so the kitchen was one of the rooms that got hit with that color.

8) B : Uh-huh, I see.

9) A : [Laughter] So I tried to cover it with white... (Walker 1998, 424)⁸

위의 답화는 전체적으로 집 단장(home decorating)에 대한 것인데, 7)은 'anyway'라는 표현을 통하여 새로운 답화분절이 시작됨을 알려준다. 3b)에서는 3a)와는 달리 과거완료가 쓰였고 여기에서 6)까지는 답화분절 III의 배경을 제시해주는 답화분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답화구조의 위계상 7)은 3a)와 인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that'은 팝오프된 관심대상, 즉 5)의 'it', 또는 4)의 'sassafras'를 지시하고 있다.

서반아어에서는 팝오프된 관심이 'ese'로 지칭된다.

⑱ A partir de los doce anos, más o menos, nuestros

hijos tienden a buscar la amistad de grupos muy cerrados. Se trata de cuatro o cinco adolescents, que se unen en torno a una especie de 'pacto implícito' : salir juntos, conversar, compartir aficiones, hablar de sus primeros amores... Sin embargo, existe peligro real cuando algunos amigos que solo se preocupan de divertirse a toda costa, proponen aventurarse en alcohol, drogas, videos, revistas pornograficas. Aqui van algunos medios para poder apartarle de un grupo, sin hostigarlo : [중략] Buscar videos o revistas con casos humanos que demuestran lo que ocurre cuando una persona se deja arrastrar por los demas. Asi, sin separarlo bruscamente de sus amigos, se le ira mostrando que la vida es mucho mas que ese grupo de influencia negativa.

From twelve years, approximately our children tend to look for the friendship of groups very closed so without separate-him roughly from his friends, (Passive) to him go showing that the life is much more than that group of Influence negative

12세 이후로 우리의 자녀들은 매우 폐쇄적인 또래집단에서 친구사이의 우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비밀 협정' 같은 것으로 결속되는데 흔히 사춘기에 접어든 네다섯 명으로 구성되어서 취미, 찻사랑등에 관한 은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며 외출도 함께 한다. 그런데, 이들 중 어떤 친구가 놀기만 좋아하고 술, 마약, 포르노 비디오나 잡지 등을 통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만 정신을 판다면 분명 당신의 아이에게 해가 된다. 이때, 벌을 주지않고 아이를 그룹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타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삶이 초래할 수 있는 일을 모은 비디오나 잡지를 찾아서 보여주기. 그렇게 하면 친구로부터 억지로 떼어놓을 필요없이 인생은 악영향을 주는 그 그룹보다 훨씬 소중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위의 예에서 화자는 불량그룹(서클)로부터 자식을 떼어놓은 방법 몇 가지를 나열하다가 이전에 관심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관심의 중심 대상이 아닌 '불량그룹'을 반복하기 위해서 지시사 'ese'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팝오프된 관심의 지표로 작용하는 '그'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⑲ ...가루로 떡을 만들면 도토리떡이 되고, 밀가루와 섞어서 도토리국수를 만들며, 꿀에 재어서는 도토리마식, 목을 만들면 도토리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 식품 중에서 단연코 인기있는 것은 도토리묵이다. 이 도토리묵은

8 본 예문에서 I, II, III은 답화분절을 나타낸다.

열량이 아주 적으므로 비만중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 이 노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 젊은 자식 내외는 전쟁터로, 혹은 부역을 하러 나가버리고 혼자 남아서 집을 지켜야 할 노인은 식량을 수탈당하여 하는 수 없이 그 뿔은 도토리라도 주으려 산으로 가는 고단한 생활상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노래이다. 만일 산에 도토리라도 없으면 이들은 무엇으로 연명했을 것인가... (KAIST 한국어 corpus)

위의 예에서 ‘그’는 이중적인 용법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 하나는 이전에 관심의 중심이었던 ‘도토리’가 이제 더 이상 관심의 중심이 아닌데 재언급되는 경우, 즉 팝오프된 관심을 나타내는 표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은 ‘뿔은’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러시아어에서 팝오프된 관심은 주로 ‘ètot’으로 나타난다.

② M. ...// U nix ploščadki takie sdelany/tak tam takie roščicy// Nu limonnye/apel' sinye vot vsjo čto ... potom sardinki oni lovjat tam//A èti žen šiny u nix ... u nix v Neapole/e... gotovjat oni vse na ulice/takie žarovni/I na žarivne oni... žarjat èti ljubimye sardinki/...

In their squares that made that there that groves well lemon orange all that after sardines they fish there and this women in them in them in Napoli prepare they all on street that roaster and on roaster they fry this favorite sardines

그들의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거리에는 그런 숲이 있다. 뭐 목련이니 굴나무니 하는...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정어리를 낚는다. 그곳의 그 아낙네들, 그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그런 풍로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풍로에다가 그 좋아하는 정어리를 익힌다 (Земская1978 : 110).

위의 예에서 처음에 정어리가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 발화에서 화자의 관심은 나폴리 여인들에게 옮겨감으로써 정어리는 팝오프된 포커스이다. 나중에 다시 정어리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대응사 형으로 ‘etot’이 온 것은 그것이 팝오프된 관심의 지시표현으로 사용됨을 입증한다. 한편 러시아어에서 원칭 지시사 ‘tot’는 팝오프된 관심을 나타내는 데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⁹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시사의 대응적인 용법에 9 그 이유는 ‘tot’는 그 선행사가 통상 바로 앞 발화에 오기 때문이다.

있어서, 영어에서는 근칭/원칭 지시사가 비교적 대등하게 분포하는 반면 한국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들에서는 특정한 한 지시사가 유표적인 분포를 보인다. 한국어의 원칭 지시사 ‘그’나 러시아어의 근칭지시사 ‘etot’는 각각 ‘이’나 ‘tot’ 대신 올 수도 있어 그 용법이 무표적이다.

한국어에서 ‘이’가 포커스 이동을 나타내고 이 경우 ‘그’가 대신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가 인지상태 및 관심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영어의 ‘this’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주로 심리적 근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그 사용영역이 영어의 ‘this’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러시아어의 ‘tot’는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관점이입]의 지표로 작용하면서 팝오프된 관심의 경우에도 ‘etot’이 오기 때문에 ‘tot’은 원칭지시사로서 영어의 ‘that’보다 그 사용영역이 훨씬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반어어는 근본적으로 ‘este(이)/ese(그)/aque(저)’의 삼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용례상, 영어의 ‘this’는 ‘este’에 해당하고 ‘ese’, ‘aque’이 함께 ‘that’에 해당하는 구도로 볼 수 있다. 대응사로서 ‘aque’이 ‘ese’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영어의 ‘that’이 사용되는 곳에 ‘ese’를 대응시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때문에 거의 이원체계에 가깝다. 이처럼 한국어의 ‘그’에 비해서 서반어어의 ‘ese’가 유표적인 것은 정관사(ei)가 대다수의 ‘ese’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어에 있어서 지시사의 대응사 용법이 관심의 중심이라는 개념에 준하여 이분화되기는 하지만 언어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그’가 무표적으로 모든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근칭지시사 ‘이’는 특별히 화자의 관심의 높음을 보이는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어는 원칭지시사 ‘tot’의 대응사적 용법이 제한적이고 [-관점이입] 지표로 작용하며 팝오프된 관심인 경우에도 영어라면 원칭지시사 ‘that’이 올 경우에 근칭대명사 ‘etot’가 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화자의 관심의 정도가 정말로 낮은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무표적/유표적 형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서반어어와 대조하여 볼 때, 이 두 언어에 관사가 없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러시아어에서는 영어나 서반어어의 관사가 담당하는 한정성 지시표현 기능까지를 두 지시사 중 어느 하나가 담당함으로써 무표화된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김명자(1999) : 현대러시아어의 지시표현 연구. 러시아연구 제 9 권, 1호
- _____ (2000) : 지시대명사 연구 : 대응적 용례를 중심으로. 슬라브어 연구 제 5 권
- 김일웅(1982) :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호
- 심재기 · 이기용 · 이정민(1984) : 의미론 서설 집문당
- 임홍빈(1998) : 국어문법의 심층구조2 태학사
- 장경희(1980) : 지시사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제 16 권 제 2 호
- Berger, Tilman and Daniel Weiss(1987) : “Die Gebrauchsbedingungen des Anaphorikums “*tot*” in substantivischer Verwendung”, *Slavistische Linguistik. Munich*, pp9-93
- Diesel, Holger(1999) : *Demonstratives : Form, Function, and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 Enfield, NJ(2003) : “*Demonstratives in Space and Interaction : Data from Lao Speakers and Implications for Semantic Analysis.*” *Language. Vol. 79.*, pp82-117
- Givon, T(1992) : “*The grammar of referential coherence as mental processing instructions.*” *Linguistics 30* : 5-55
- Gundel, Jeanette, Nancy Hedberg and Ron Zacharski(1993) :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Vol. 69* : 274-307
- Halliday, M.A.K. and Ruqaiya Hasan(1976) :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London and New York*
- Himmelman, Nikolaus P(1996) : “*Demonstratives in Narrative Discourse : A Taxonomy of Universal Uses*”, in Barbara Fox ed.
- Studies in Anaphora, John Benjamins*
- Kibrik, Andrej A(1996) : “*Anaphora in Russian Narrative Prose : A Cognitive Calculative Account*”, in Barbara Fox ed. *Studies in Anaphora, John Benjamins*
- Lee, Chungmin(2003) :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in William McCure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 12, CSLI.*
- _____ (2002) : “*Contrastive Topic and Proposition Structure*”, in Di Sciullo, Anne-Marie ed. *A Symmetry in Grammar. John Benjamins.*
- Linde, Charlotte(1979) : “*Focus of Attention and the Choice of Pronouns in Discourse*”, in Talmy Givon ed., *Syntax and Semantics Vol.12. Academic press : New York.*
- Naylor, Kenneth E(1983) : “*On Expressing ‘Definiteness’ in Slavic Language and English*”, in Michael Flier ed.,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1. Slavica : Columbus*
- Nørgard-Sørensen, J(1992) : *Coherence Theory : The Case of Russian Mouton : Berlin and New York*
- _____ (1998) : “*Pronouns and their reference in Russian*”. *Scandio-Slavica. Vol.44*
- Padučeva, Elena Viktorovna(1982) : *Referencial’nye aspekty vyskazyvaniya (semantika i sintaksis mestoimennyx slov) RAN : Moskva*
- Sidner, CL(1986) : “*Focusing for Interpretation of Pronouns*”, in Michael Brady and Robert C. Berwick eds. *Computational Models of Discourses MIT press.*
- Strauss, Susan(1993) : “*Why ‘this’ and ‘that’ are not complete without ‘it’.*” *CLS. 29*
- Sun-young Oh(2001) : “*A Focus-based Study of English Demonstrative Reference.*”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29* : 2
- Walker, Marilyn A, Aravind K, Joshi, Ellen F, Prince(1998) :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Clarendon press : Oxford*